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숲속의 광양' 조성 박차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생활밀착형 숲 등 그린 뉴딜사업 추진 "지친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활력 제공 녹색공간 지속적 확대 할 것"

광양시는 민선 7기 4년 차인 올해 산림 분야 뉴딜사업(K-포레스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정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도시 '숲속의 광양'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현복 광양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이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24ha)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숲(10개소)과 자녀안심 그린숲(6개소)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시 내·외곽 도

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녹지를 연결해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태인동 명당국가산단과 광양읍 익신일반산단 일원에 5.4ha, 옥곡면 신금일반산단과 광양읍 초남제2공단 일원에 3ha 등 총 8ha의 면적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대상지가 산업단지에서 생활권 주변까지 확대됨에 따라 3월 개관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광양읍 유당공원,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폐선부지 일원과 동천변, 국지도 59호 선(반송재~광양경찰서) 일원 7ha에 70억 원을 투입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사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당공원

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을 거쳐 운전면허시험장, LF 아웃렛, 순천 경계 동일터널까지 광양읍권(구) 경전선 폐선부지 약 4km가 녹지축으로 연결됨에 따라 생태하천인 동·서천과 함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녹색 쉼터 제공으로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다압중학교 명상숲(학교숲) 조성에 6천만 원, 평소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마동근린공원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생활환경숲 조성에 1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을 도입해 시민에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실내정원에정지(커뮤니티센터)

이를 위해 평소 방문자들이 많은 마동 커뮤니티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심는 한편, 자동관수 시스템 및 온·습도조절기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가든 6개소(산단기점 4, 다중이용시설 2)를 조성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해 휴식·치유·관상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고흥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공 75억 원 투입 12월 준공 목표

고흥군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올해 1월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읍 호령리 문화회관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516㎡ 규모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수영장, 축구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집중되어있는 곳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되어 위치를 선정하였다.

군은 지난해 건축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문체부 기본설계 협의,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공사로 금정종합건설(주)을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순천시,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시정발전 로드맵 구체화 위해 부서별 협업·토론 중심 이뤄져



순천시가 2021년도 주요 정책(시책) 사업계획에 대해 점검 논의하는 2021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18·19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4년차인 2021년도의 시정운영 방향 제시를 제시하고 순천형 뉴딜사업,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 민선7기 공약 이행 등 시정발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서별 협업과 토론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1국장 1정책 책임제(10건), 신규시책(34건), 신년사 관련(29건), 3E융합 순천형 뉴딜사업 관련시책(46건), 공약(37건), 주요시책 및 현안(161건) 등 총 317건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순천시는 올해 시정운영은 경제시

정, 민생시정, 미래시정을 3대 핵심가치로 삼고 실물경제 회복과 시민행복 체감시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제시정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3E프로젝트 본격 가동,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원년, ▲순천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 ▲연향뜰 개발사업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순천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 안정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생시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행정·의료체계 개편, ▲신대지구 국내 의료기관 유치,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 ▲반값 임대아파트 140세대 공급, ▲장전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지능형 상수도 물관리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 선점을 위한 미래시정 분야의 핵심 시책으로는 ▲순천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추진, ▲메가프로젝트 발굴,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통해 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여수시, '시민소통광장' 설문조사 패널 정비로 응답률 70% 향상

여수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 까지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정비를 추진한 결과 응답률이 70% 향상됐다고 최근 밝혔다.

패널 정비 전후 설문조사 평균 응답률은 각각 8.5%와 14.7%로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여수시는 자체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패널 10,848명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출석체크 이벤트, 전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문자를 통해 패널 정비를 사전 안내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을 설명했다. 출석체크 이벤트로 참여자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등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전화 전수조사는 1년 이상 설문조사 미 참여 패널 5,298명에게 참여 의사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872명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되찾았고, 1,91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514명은 전출, 휴대폰 명의 변경,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 처리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임 이벤트와 경품 당첨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패널을 모집하고 참여율도 더욱 높일 계획이다"면서 "패널 구성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보완 작업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휴대폰 앱(app)이나 인터넷 사이트(<http://www.yeosu.go.kr/survey/>)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주유권, 제과점 쿠폰, 음료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보성군,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보성군은 2021년 관내 고등학교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자 현행 저소득 여성청소년(11세~18세)에게만 지원하던 위생용품을 일반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11,500원으로 연간 138,000원이다. 한 번 신청하면 만18세까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현재 보성군은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마친후 5월부터 관내 6개교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2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 위생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